

신안군, 재정 부담 ‘경관수 사업’ 관리체계 전면 전환

2019년 이후 수목 구입 등 111억 투입
유지·관리 매년 4억 소요 원점 계검토
내달 타당성 용역 착수 내년부터 정비
郡 “재정 누수 막고 예산 운용 효율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장기간 추진하
며 관리 부담이 불어난 경관수 사업을 미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 체계를 전면 전환

한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막대한 관리 비용 투입,
수목 활용의 한계, 반출 지연에 따른 민원 등을
종합 검토해 경관수 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 사업’으
로 첫발을 뗀다. 당시 140여농가에 50만여주의
묘목 구입비를 지원했다.
이어 2019년부터는 수목 관리와 공공 활용을
목적으로 130여농가로부터 21만여주의 경관수
를 직접 사들였다.
이 가운데 17만여주는 공원 조성과 가로수 식

재 등 공공사업에 투입됐지만 여전히 100여농가
에 4만여주가 남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
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수목 구입과 토지 매입·
임차 등에 투입된 예산만 총 111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고정 비용만 매
년 4억원 이상이다.
실상가상으로 장기간 자란 기존 수목을 캐내
운반하고 이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새로운 묘목
을 구입해 심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어 경제성마
저 한계에 봉착했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수목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장기 보유할 실익이 사
라진 셈이다.
공공사업의 수목 수요 역시 포화 상태. 적기
반출이 미뤄지면서 토지를 빌려준 소유자와 농
가들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비용 대비 편익을 점검하고 사
업의 존재를 포함한 장기 지속 가능성을 원점에
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
제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 수목 현황과 관리
실태, 정리 대상·소요 비용, 이식과 신규 식재

의 경제성 차이, 장기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분
석한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 가치와 경제성
이 낮은 수목을 선별하고 내년 중 대대적인 경관
수 정리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정비는 단순한 수목 처분이
아니라 미래 재정 누수를 막고 한정된 예산을 적
재적소에 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률
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해 현장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
혔다.
/신안=양훈 기자



‘제26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총 54만여명의 방문객을 동원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며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상사화 군락지를 산책하
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 <영광군 제공>

54만여명 찾은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대성황

불갑사 일원 관람객 중심 동선 재편
상사호전시판·푸드트럭 신설 등 호응
다화용기 도입 폐기물 ↓ 친환경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대표 가을꽃
축제인 ‘제26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54만
여명의 방문객을 동원하며 열흘간의 일정을
마쳤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불갑사 관광지구 일원
에서 열린 축제는 기존 무대 공연 중심에서 벗
어나 관람객이 상사화 군락지를 여유롭게 즐기
는 데 초점을 맞춰 공간을 재편했다.
주 관람로인 꽃길 걷기 코스 곳곳에 포토존과

휴게 공간을 확충해 관람 편의를 높였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간과 콘텐츠도 호응을
얻었다. 기존 트롤리버스를 개조해 조성한 ‘상
사호 전시관’은 축제 캐릭터를 활용한 다채로
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
을 붙잡았다.
행사장 동선도 개편해 주무대와 먹거리 구역
을 분리, 혼잡도를 낮추고 푸드트럭존을 신설해
메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장과 상사화 수릿간 등에도 소비가 이어지며 지
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불갑사 일원의 장소성을 살린 문화 프로그램
중 불갑사 내에서 치러진 특별 결혼식 ‘동행웨
딩’과 사찰음식 체험, 야간 문화행사인 ‘상사
화 시네마’ 등은 방문객에게 이색 경험을 제공

했다.
특히 행사장 내 모든 음식점과 판매 시설에
다화용기를 전면 보급해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운영을 실천했다.
축제 공식 일정은 막을 내렸지만 불갑산 일원
상사화 군락은 여전히 만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 영광군은 축제를 놓친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가을 정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당분간 행사장
일원 관광 환경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상사화 본연의 아름다움
에 집중해 축제 공간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
한 시도에 많은 분들이 화답해 줬다”며 “현장
평가와 방문객 의견을 바탕으로 기반 시설을 확
충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축제로 발전시키겠다”
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암모니아 선박연료 실증센터’ 공사 차질 없을듯

목포시 18억 미편성…사업 지연 우려 ↑
市, 주관기관 자체예산 先투입키로 합의
“미편성 시비 내년 본예산 최우선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국가 기반 구
축 사업인 암모니아 선박연료 실증센터 건립에
필요한 시비 부담금을 제때 편성하지 않아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관기관 예산
선투입을 통해 사업 지연을 막기로 했다.
30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호한 의원 (더불

어민주당, 상·옥암·삼향동)은 최근 열린 제400
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양산
단에 건립 중인 센터의 올해 시비 18억원이 본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서 모두 누락돼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국비 100억원·도
비 40억원·시비 6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유일
친환경 선박연료 기술 검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
다. 지난 3월 착공해 9월 말 기준 공정률 70.2%를
기록하며 내부·마감 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목포시는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한 수습책을 내놴다. 시는 재정 여건상 예산

편성이 어려웠던 점을 설명하고 주관기관인 한
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KOMERI)과 협의해
연구원 자체 예산을 먼저 투입, 공사를 이어가
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올해 미편성된 18억원을 202
7년 본예산에 확보해 교부하겠다는 내용의 공
문을 연구원 측에 공식 전달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연구원과 협의해 우선 자
체 예산으로 건축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했다”며 “미편성된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최우선 반영해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220억 투입 만수지구 상습 침수 해결 박차

자연재해위험개선 신규 사업 확정
국비 110억원 확보 배수시설 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은 30일 “집중호
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를 겪어온 시종면 만
수지구에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입해 근본적인
재해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시종 만수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2027년 정부 신규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110억원을 확보했다.
시종면 만수지구는 태간소하천의 좁은 하천
폭과 낮은 제방 탓에 하천이 범람하고 마을 내
배수시설 용량도 부족해 2023년부터 최근까지
주택과 상가·농경지 침수가 반복됐다.
이에 군은 2027년부터 국비 110억원과 지방
비 110억원 등 총 220억원을 들여 태간소하천
제방 6.2km 구간을 보강하고 교량 6곳을 제거

설한다. 마을 배수시설과 우수관거 정비도 병
행한다.
하천 통수 능력을 높이고 빗물 배출 여건을
대폭 개선해 만수마을과 시종5일시장 일대 침
수 위험을 낮출 방침이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
계와 편입토지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착공할 계
획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오랜 기간 침수로 고통
받은 주민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 하천과 배수시
설을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비가 많이 올 때마
다 침수를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사업을 추
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전래놀이·선비문화 체험하세요”

나주시, 국가유산주간 ‘나주향교 오지네’
명륜당 앞마당 소원등 만들기 등 다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국가유산주
간을 맞아 전통문화에 현대 음악을 접목한 참여
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 오후 1시
부터 나주향교 명륜당 앞마당 일원에서 ‘나주
향교 오지네’ 행사가 열린다.
행사는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나주향교 굽
은 소나무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전통
공간인 향교의 문턱을 낮춰 시민과 관광객이 전
래놀이와 선비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구
성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아동부와 일반부로 나
뉘 ‘전래놀이 소대회’가 치러진다. 제기차기, 비
사치기 등 종목별 예선과 본선을 거쳐 실력을

겨룬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여기쌍륙’, ‘상읍례 소원
등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다채
로운 선비문화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오후 4시부터는 현대적 감각을 더한 문화예
술 무대가 펼쳐진다. 퓨전 그룹 ‘더블루이즈’
의 퍼포먼스와 ‘크로스포맨’의 팝페라 콘서트
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분위기를
연출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전래놀이 대화와
각종 체험은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놀이와 공연을 접목해 누
구나 거부감 없이 국가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향교가 역사 보존을 넘어 시민
들이 즐겨 찾는 일상 속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
리 잡도록 지속 가능한 활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 기자

함평군, 민선 9기 출범 100일 ‘타운홀미팅’

14일 10개 분야 토론회…군민 50명 공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은 30일 “오는 10
월14일 함평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새롭게 100
일, 이롭게 100인 타운홀 미팅’을 열고 행사에 참
여할 군민 50명을 10월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고 밝혔다.
참석자는 각 읍·면 추천 50명과 공개 모집 5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공모는 교육, 농·축·수
산, 지역 경제, 복지 등 10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며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사는 지난 100일간의 성과와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군민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순 개별 민원이나 건의보다는 군정 전반의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다루며 현장에서 이남오
군수가 직접 답변하고 소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함평군 누리집 안내문을 참조
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
과는 개별 통보된다.
함평군 총무과 관계자는 “민선 9기 비전을 군
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며 “함평의미
래 청사진을 함께 그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해남군, 영농 부산물 순회 파쇄 지원

전담반 2개월간 신청 농가 방문
고령층·장애인 농업인 등 최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은 30일 “영농 부
산물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전담 파쇄지원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 수확철인 10~11월 2개월 간
신청 농가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 파쇄 지원사
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가을철 수확 후 방치되기 쉬운 고춧대, 들깨
대, 과수 잔가지 등이 주요 처리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1월30일까지 접수한다.
해남군에 농지를 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
청할 수 있다. 단, 원활한 파쇄 작업을 위해
희망 농가와 마을은 해당 부산물을 기계 작

업이 가능한 지정 장소에 사전에 모아줘야
한다.
특히 군은 일손 부족으로 폐기물 처리에 막막
함을 겪는 만 75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 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최우선 지원해 영
농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앞서 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147농가(12.3ha)
의 부산물을 처리해 호응을 얻었다. 파쇄를 희
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이나 관
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적기 파쇄 지원을 통해 고
령 농가의 일손 부담을 덜고 불법 소각으로 인
한 대형 산불 우려를 원천 차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업인들의 신청과 협조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남=박필용 기자